

[청출어람 문학] 복습자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보기를 통해서, (가)는 현대 문명의 상실감과 소외감을 드러낸 시라는 정보를 캐치할 수 있다. (나)는 보기에서 토속, 자연, 인간 조화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 부분을 떠올리면서 읽는다.

사실상 이렇게 주제가 주어진 경우에는 작품을 빠르게 읽으면 된다.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사.

긴—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작품 실전 사고의 흐름〉

어차피 주제는 현대문명에 대한 상실감 소외감일테니까, 슬픈 신호도 그 맥락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늘어선 고층(현대문명)도 창백한 묘석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찬란한 야경도 무성한 잡초처럼 보이는 것이고~

낯설다? 현대문명 낯설고~ 눈물 겨운 이유도 현대문명~
공허해~ 현대문명 공허해~ 비애? 현대문명 때문에 슬퍼

(나)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천연(天然)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응 고향~ '토속' 들길 '자연'~ '화초'를 심는 '마을'~ '인간과 자연 조화'~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ip. 늘 효과 부분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①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일단 '가'가 정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워버리면 된다. (물론 (나)도 없다) 수미상관은 (가)에만 존재한다.

※ 수미상관은 맨 앞과 맨 뒤가 우연으로 볼 수 없는 유사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가'에서 경외감을 표출할 이유가 없다. 경외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인대 대자연에 대한 경외감~ 같은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나' 역시 드러나 있지 않다. 영탄적 표현은 (가)에는 드러나 있다. 까닭도 없이 눈물겹구나! (감탄하는 표현) (나)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일단 (가)는 늘어선 고층이 창백한 묘석 같다, 찬란한 야경이 무성한 잡초 같다고 말하면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애초에 도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 (나)는 마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인식이 있겠거니~ 3번이 정답 후보가 되면서 확인해 보면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④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는 것은 (가)와 (나) 모두 개소리다.

⑤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주제에 대한 공감은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가)를 보면 '나'가 있다. (나)시에는 '나'가 드러나 있지 않다.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보통 '나', '우리'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 등불을 주목하면서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지?

※ 환기는 '드러내다'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해도 괜찮다.

②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애초에 뒷부분이 개소리라고 생각하면서 2번 확인! 말 피부에 스미는 어둠이니까, 어둠 (시각적) 피부에 스민다 (촉각) 굳이 따지면;;; 공감각은 맞다고 볼 수...도 있..애매하긴함ㄴ;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힌다는 것은 개소리.

③ ㉢: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여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

→ 차단-한~ 장음으로 읽었음. 뒤에 이어지는 말은 뻔한 말.

④ ㉤: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듯 ~듯 ~듯 ! > 천연히! 동질적 속성 부각하고 있네요.

⑤ ㉥: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대상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 네 천연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고 볼 수 있겠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균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 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1950년대 후반의 시적 경향을 보여 주는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다. 그는 사라져 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고,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 보기 문제 풀 때 Tip : 보기랑 '같은 얘기' 하고 있으면 맞는 선지. 보기에서 한 적 없는 얘기 / 상관 없는 얘기 /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

① (가), (나) 모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군.

→ (가), (나) 모두 '보기에서' 회화적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말함 > 1번 선지는 패스해도 되겠네.

②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군.

→ 애초에 시간의 순환적 흐름이 조금 '거슬리지' 않니. 시간의 순환이 이루어지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혹은 낮밤낮 이런 식으로 '순환'이 이루어져야죠. 그런 내용은 없네요 2번 정답.

③ (가)의 '무성한 잡초'는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따른 상심을, (나)의 '화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군.

→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대한 상심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들기는 하지만, 현대 문명에 대한 '상실, 소외감'이란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패스, '나' 역시 보기랑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패스.

④ (가)는 (나)와 달리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제시하고 있군.

→ 슬퍼 슬퍼 슬퍼~ 선지는 또 보기랑 같은 얘기하고 있음 패스.

⑤ (나)는 (가)와 달리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한 얘기와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음 문제될 게 없음 패스.

<청출어람 문학 02>

(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울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허적: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서술어에 집중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뭔가 못한다는 거죠. 뭔가 삶의 애증 (사랑과 미움)을 짐지지 (짐지다 - 짐을 지다) 못한다? 이런 걸 강의 때 뭐라고 표현했죠.

상태가 안좋다. 고 표현하면 좋겠죠. 병든 나무라는 표현을 보니 상태 안 좋은 거 빼박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안좋은니까 →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자는 거죠.

그 다음 아라비아 사막 어떤 곳인지 설명 나오네요. (1,2연 연결)
영겁의 허적 → 열렬한 고독! (아무 것도 없으니까 고독! 2,3연 연결)

혼자 서면 '나'랑 대면하게 되는데, '나' = 나의 생명, 원시의 본연한 자태!
못 배울 바에는 차라리 어느 사구에서 해골이나 쪼인다?

즉, 지금 상태 안좋아서 > 사막갈래 > 가서 혼자 서있으면 > 나의 생명 만나 > 생명 회복하고 싶어 못 할바에는 주금! 이라는 거죠.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꿔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

(나)시는 보기에서 정보를 많이 줬죠. 농촌 먹고 살기 힘들다. 즉, 농촌 현실의 암울함이다. 이것만 알아도 시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분위기 조성은 일반적인 얘기! 계절 드러내는 시어? 없습니다.
② (나)는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 준다.
→ 대상의 이면 (다른 면)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소거.
③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사물의 속성** 문학에서 말하는 '사물'은 어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이해가 빠르다. 일단 둘다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 한다.
→ 시상 마무리 할 때 여운 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대구의 방식이 있지만 확인해보자. 한 다리를 들고 / 날나리를 불거나 구는 두 어절부터 구라고 볼 수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⑤ (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 이상향은 문학에서 '화자가 간절히 바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에서 일단 시적 공간의 탈속성은 드러납니다. 아라비아의 사막은 탈속성 (속세 벗어난 성질)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화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 공간, 상태를 사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2. (가)의 '나'와 ㉠~㉤의 관련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 네 상태 안좋은 나, '나'는 나의 생명~ 대비된다고 할 수 있겠죠.
② ㉡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 영겁의 허적 > 고독에 호울로 서면 > 대면 가능
③ ㉢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벗어남으로써'가 아니죠. 고독한 상태로 있어야겠죠.**
④ ㉣은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 네 ㉣ 원시의 본연한 자태~ '나' = 나의 생명
⑤ ㉤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다.
→ ㉤을 고른 사람들이 많은데, ㉤만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생명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해골이나 쪼이겠다는 거죠.

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피폐해져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①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 네 보기랑 같은 맥락이죠. 굳이 [A]를 볼 필요 없이 감상의 적절성을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시간 단축의 포인트)

②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줘.

→ 2번 선지도 1번 선지와 동일합니다.

③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줘.

→ 보기에서 설명하지 않았죠. 현실의 암울함은 문제 극복과 다른 맥락입니다. 결국 A,B,C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상의 적절성이 중요합니다.

④ ㉓와 ㉔를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

→ 냅 이견 뭐 어렵지 않죠.

⑤ ㉔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 자조: 스스로를 비웃다! 알아두세용

〈청출어람 문학 03〉

(가)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 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발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慈城)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예서 삼백오십 리 묘향산 백오십 리

묘향산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비인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찌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공공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찼을 것이다

- 백석, 「팔원(八院)-서행시초(西行詩抄) 3」

* 내임: 냄. '배웅'의 평안 방언.

계집아이를 보는 상황입니다. 어떤 계집아이? 개고생한 계집아이.
주재소장이랑 아이가 마중을 나왔네요. 삼촌을 보러 가는군요.

어느 한 사람이 눈을 찌는 것은 여자아이랑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죠.

(나)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이들이 무엇 하려고

㉠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쳐다보면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할 뿐

㉡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 보는 저이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 두고 있었다

저이들도 일자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 하종오, 「동승」

보기를 토대로 보면, 시선 : 부정적인 것이죠.

나는 아시안을 쳐다보는데 그들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긍정적 무관심이죠.

동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 보기에서 말한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
들고 있지 못하다와 연결 가능합니다.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너무 뻔하죠. 아이를 관찰하고 아시안을 관찰합니다

㉡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응 개소리

㉢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나)랑 관련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가)는 그래도 겨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자주 나오는 개소리 선지입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에서 '어린', '하나'는 화자가 계집아이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를 나타
낸다.

→ 마음에 안든다고 고르면 안됩니다. 늘 시인의 '의도'를 생각해보세요.
왜 굳이 '어린', '하나'라는 표현을 썼을까?

㉡ ㉡에서 '발고랑'에 비유된 '손잔등'은 계집아이의 고달픈 삶을 드러낸다.

→ 응 당연해~

㉢ ㉢에서 '삼백오십 리', '백오십 리'는 계집아이의 여정이 고단할 것임을
나타낸다.

→ 1번 해설과 비슷합니다. 왜 굳이 삼백 오십리 일까 백오십 리일까? 선
생님 이 정도 거리면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질문ㄴㄴ

㉤ ㉤에서 '유리창 밖'은 안과 대비되어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의 슬픔
을 강조한다.

→ 문학 문제는 뭐다? 비문학의 내용일치다. 육친이 아니죠! 완벽하게 틀
린 선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 ㉤에서 '눈을 찌는다'는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다.

→ 네 유기성~ 지문 읽을 때 확인했어야죠.

3.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보기>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시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시선은 관심
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치 평가의 의미를 띠 경우 상대방에게 부
담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이해된다.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가치 평
가적 시선을 거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 '국철'은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나는 공간이겠군.

→ 내가 그들을 쳐다보는 시선, 그들이 서로를 보는 시선

㉡ '나'의 쳐다보는 행위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겠군.

→ 보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 '저이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 문학은 뭐다? 비문학 내용일치다. 긍정적인 무관심 →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 → 그런데 그들은 서로 쳐다보고 있다 → 3번이 정답

㉣ '나'가 황급히 '고개 돌렸'던 것은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행위겠군.

→ 넵 보기와 같은 맥락~

㉤ '동승'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뜻이 담긴 것이겠군.

→ 지문 읽을 때 파악했으면 더 좋았겠지요?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보기>를 토대로 읽어봅시다.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다.

백골이 처음에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고 해도, 백골을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 '자아 성찰'이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백골은 그러면 부정적인 모습이 되겠지요? 여기서 지조 높은 개를 부정적인 의미로 파악하면 안 되는 것이, 지조 높은 개가 나로 하여금 '백골 몰래 또 다른 고향'에 가게 만들죠. 즉 나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뇌피셜이 아니라 <보기>에 근거했다는 것이 포인트!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낯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굽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테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 · 2」

*형형한: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나) 시도 (가) 시와 마찬가지로, 자아성찰 +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까치는 긍정 까마귀는 부정! 이러면 안되겠죠. 끝까지 빠르게 읽었을 때 화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까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의 태도와 관련 있는 것은 까마귀였고, 까마귀가 바라보는 먼 지평선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다)

[A]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였다 [A]
[B]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B]
[C]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빠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C]
[D]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
껍고 뻗뻗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D]
[E]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돌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E]

- 김기택, 「멸치」

(다)는 물결, 길 = 멸치라는 것을 유기적으로 파악해 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유로웠던 멸치가 딱딱하게 굳고 맛탱이가 가는 맥락을 파악해 내면 문제 푸는 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가)에서 '까마귀가 되리라'는 영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감정을 응축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음 없어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가): 고향, 방 vs 또 다른 고향 (나) 먼 지평선 vs 안마당 (다) 바다와 바다가 아닌 곳 / 지향하는 가치가 (다) 때문에 헛갈렸을 수도 있을텐데, 왜 시인은 바다와 그렇지 않은 곳을 대비해서 멀치 얘기를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의문 : 시인은 왜 이 시를 썼을까?) 자유라는 지향하는 가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④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효과 파악 > 개소리 / 회상도 음슴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어도 음슴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①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이미 시 읽을 때 파악 완료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 2번 선지를 고르면 안된다고 지문 설명할 때 했습니다.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음 까마귀 새로운 존재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이미 지문 읽을 때 파악 완료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 (나)는 개소리 먼 지평선은 긍정적인 의미일 수 밖에 없겠쥬.

3.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애초에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파악하면 답은 2번 밖에 없습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 멀치 때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멀치 > 길 > 자유 ! 맞는 말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은 멀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 외부 세계의 폭력성이 어감이 '강하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어감, 정도의 차이'는 정답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의 강약은 기준 X

③ [C]는 멀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냉 맞음 ㅋ 멀치 맛있영 ㅋ

④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멀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 애초에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⑤ [E]는 '파도'와 '해알'의 움직임을 통해 멀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생명력은 말 그대로 생명이 느껴지는 힘입니다. 멀치가 지닌 생명의 힘!!!

〈청출어람 문학 05〉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올멍올멍 떼내려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꿀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흑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가)시 해설: 보기랑 연결시키면 고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는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고향 근처에 있다는 것. 장꾼들에게 고향을 뵈냐고 물어보는 것. 즉, 귀향이 미완의 상태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향이 미완이라고 고향이 부정적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룸의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풍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무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 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공작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낡은 집」

*예제로: 여기저기로.

(나) 해설은 애초에 앞부분에서 귀향 어설피하다부터 미완의 형태 파악해야 합니다. 보기에서 말한 가족애 (어머니, 동생, 아버지가 오리를 잡는 다) 도 파악했으면 좋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애와 귀향이 미완이라는 것이 '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1.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라고 왜 썼을까 > 친근감이란 연결 시켜도 될까 > 옳 관찰아. (나)는 당연. 미완의 형태. 1번 정답이네요.

② (가)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 개소리. (나)는 '벗어나고자 한다'가 개소리.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가), (나) 모두 주제가 '삶의 무상함'은 아니니까 지우면 됩니다.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 멍멍 사운드 ㅇㅋ ㅂㅂ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떠내려가는 시각적 이미지~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녹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②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누구랑 이야기하지? 진짜 의문 X 설의법 ㅇㅋ

③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 강 진짜 개소리 무슨 장꾼들의 설움이 왜 나와 주제에서 벗어난 선지

④ ㉢: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 농부내외 그들의 딸

⑤ ㉢: 쓸쓸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냉 이것도 어렵지 않음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 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① (가)에서 주인공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 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 1번 선지 보자마자 정답 골랐어야 합니다. 귀향을 완성하려고 한다!는 것은 보기의 맥락과 다른 맥락이고, 주인공 늙은이가 왜 슬픈지 시인이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겠쥬. 1번이 정답.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냉 보기 맥락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냉 보기 맥락 슬레이트 흙담집 / 차비 간신히 버는 아버지 - 궁핍 = 당연히 이상적이지 않음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냉 가족애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 냉 미완의 상태~